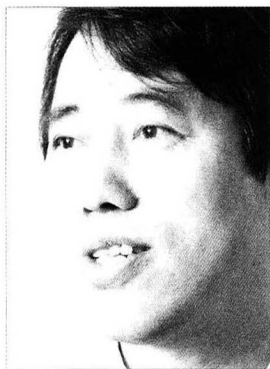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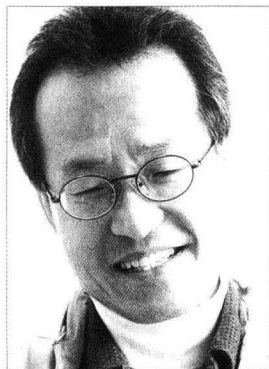


3인3색, 세 남자가 말하고 보여주는 생명의 스펙트럼

황우석·최재천교수 글,
김병중교수 그림...
미술가와 과학자의 공합



황우석 최재천
김병중

세 가지 공통 키워드, '생명'·'53년생'·'촌놈'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바쁜 세 남자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것은 나이 때문이었다. 이들은 전쟁이 끝나는 해인 1953년에 태어났다. 대부분의 동갑내기들이 그렇듯이 이들은 서로에게 강한 끌림을 느꼈다. 더군다나 함께 생명이라는 화두를 평생 붙들고 살아왔다는 점에서 이들의 끌림은 더했다. '53년생 화가와 과학자가 만나면 어떤 화음을 낼까...' 이들의 만남을 제안한 사람 역시 53년생인 효형출판의 송영만 사장이었다.

"3월 초에 서울대 구내식당인 동원관에서 만났습니다. 김 교수와 황 교수는 이미 절친한 사이였고, 김 교수와 최 교수는 각각 《화집기행》《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를 낸 효형출판의 저자들이었습니다. 황우

석 《나의 생명이야기》는 대비가 돋보이는 '에세이집'이다. 생명공학자와 동물행동학자 그리고 화가, 서로 다른 세 명의 목소리가 모여 하나의 화음을 낸다. 스스로 '칼잡이'라고도 부르는 생명공학자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자신의 생명공학 연구에 초점을 맞춰 사람들의 선입관과 오해를 풀어나간다. 이에 비해 밤낮 없이 곤충의 사회성을 연구해 온 사회생물학자는 곤충들에게서 배운 민감한 더듬이를 뺀 과학적 사고의 중요성과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짚어나간다. 또한 60컷의 그림으로 참여하고 있는 화가는 글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삽화이길 거부하고 단상 그 자체로도 하나의 메시지를 담을 수 있도록 했다. 생명공학자 황우석, 동물행동학자 최재천, 동양화가 김병중... 이들이 내는 한목소리는 바로 '생명'을 통한 인류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삶이다. 특히 시골 유년시절부터 시작되는 이들의 생명이야기는 '서울대 출신'이 아니라 한 명의 '촌놈'이 어떻게 과학자로 살아가게 되었는지, 과학으로 무엇을 이루고 싶어하는지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석 박사는 워낙에 국제적으로 바쁜 분이어서 걱정을 했는데 함께 작업을 하겠다고 흔쾌히 승낙하더군요."

'파래골 진짜 촌놈' 황우석 교수, 학창 시절 꿈에서라도 고향 강릉의 산천에서 뛰 놀아야 했던 최재천 교수, 섬진강의 물고기들과 함께 먹을 감고 숲의 다양한 노래에 귀를 기울인 김병중 교수... '생명' '53년생' 이외에 '촌놈'은 이들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다. 김병중 화백은 필자들을 대신 해 쓴 서문에서 과학자와 화가라는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우리 셋은 닮은 점이 꽤 많다"고 말한다.

"우선 같은 동갑내기들인 데다 자연이 키운 아이들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이 나라 산하에서 나고 자라 온갖 풀과 꽃과 생명체들과 더불어 성장하였다는 점이 같다. 그리

고 그 유년의 자연 체험으로 '생명'이라는 주제를 평생 잡고 있다는 점이 같다.”(머리말 <두 과학자와의 행복한 동행> 중에서)

‘같이면서 다른’ 세사람의 조화에 고심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한 권의 책에 등장시키는 것은 편집부의 몫이었다. '인문의 예술화, 예술의 교양화'를 추구하고 있는 효형출판으로서 새삼스러운 작업은 아니었지만 '53년생', '생명', '촌놈'이라는 키워드를 빼면 이들과처럼 다른 사람들도 없었다.

다행히 김병중 교수의 경우 이미 그림은 준비되어 있었고, 최재천 교수는 내용과 글에 대해서는 워낙에 신뢰할 수 있는 필자였다. 문제는 황우석 교수였다. 신춘문예로 등단한 적이 있는 김 교수나 '대중의 과학화'를 위해 교양과학서를 쓰는 등 활발한 글쓰기를 해오고 있는 최 교수와 달리 황 교수는 자신이 하고 있는 연구 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이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신문잡지에 기고한 황우석 교수의 글들을 받아든 고혜숙 편집장은 칼럼을 크게 어린 시절 이야기와 실험실 이야기로 나누었다. 황 교수를 인터뷰해 좀더 구체적이고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칼럼에 살을 붙여 나갔다. ("황우석 교수의 글은 여러 지면을 통해 발표한 것을 토대로 효형출판 편집부에서 재구성하여 다듬었습니다." (184쪽) 황 교수는 이 사실을 꼭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이미 자신의 글에 대해서 이는 사람은 다 이는데 터무니없이 매끄러운 문장으로 나가면 오해를 살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황 교수님하고의 만남은 첩보영화를 방불케 했습니다. 국가 요인이어서 항상 경호경비가 따라붙은 데다 바쁜 스케줄 때문에 약속장소는 항상 황 교수님이 원하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한번은 독일에서 귀국한 그날 오후에 일본으로 가야 했습니다. 교수님 나름대로 불일이 있었고 결국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시간에 겨우 인터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황 교수는 한 명의 자연인이라기보다 국가의 기대를 한몸에 안고 있는 '국민적 자산'에 다름아니었다. 생명공학에 쏟는 그의 열정엔 늘 인간과 조국에 대한 깊은 사랑이 배어 있다. 그가 종종 내비치는 애국심은 언뜻 곁이 다듬어지지 않고 소박하기 그지 없어 보인다. 허나 '촌놈'만이 지닌 진정성이 깃들어설까. 접할수록 가슴 뭉클하게 와닿는 그 무엇이 그 속엔 들어 있다.

황교수 인터뷰 첩보영화 방불... '세 필자, 서로 배려하는 마음 돋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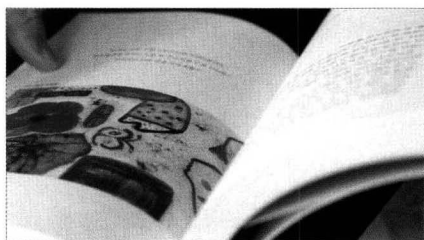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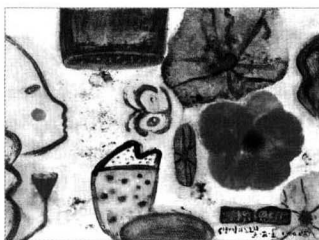
다음 문제는 황 교수와 최 교수 글의 색과 무게를 맞추는 일이었다. 애초에 최 교수는 청소년까지 대상을 넓혀 생명이라는 키워드로 폭넓은 주제의 글을 쓰고 싶다는 의견을 보내온 터였다. 하지만 황 교수의 글에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큰 비중을 차지하면

서 최 교수도 글의 방향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행히 더욱 진정성을 얻기 위해서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편집부의 의견에 최 교수도 동의했다. 김병중 교수도 문청시절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됐던 글솜씨를 유감없이 발휘하며 생명에 대한 단상을 써주었다.

세 명의 남자를 어떻게 조화롭게 구성할 것인가라는 편집부의 고민은 이런 노력과 세 필자들의 배려로 해결될 수 있었다. 제삼자의 시각에서 볼 때 세 필자들의 교감이 부족하다는 점이 아쉬울 수도 있지만 오히려 통일되고 강요된 주제보다 생명에 대한 각기 다른 경험과 생각이 병치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생명에 대해 더욱 열린 마음으로 성찰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게 편집부의 의견이다.

“세 분 모두 '세계적'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 정도 위치에 있으면 자존심도 보통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 분은 자존심보다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책 만들기의 전문가인 저희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주셨고, 서로를 위해 원고방향을 수정하는데도 주저하지 않았습니. 물론 저와 필자들 사이에 갈등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갈등은 오히려 더 좋은 책을 만드는데 밑거름이 됐습니다. 편집자로서 뿌듯한 경험이었습니다.” (고혜정 편집장) **▶▶**

취재 | 신동섭기자 · 사진 | 박신우기자



1 2 3 4

1 2 “만물이 생기고 저희끼리 즐거운 세상, 생명이 생명과 눈짓하는 그런 세상을 붓끝으로나마 꿈꾼다.” 김병중 교수는 자신의 그림 밑 생명에 대한 짧은 단상을 덧붙였다.

3 각기 다른 개성의 세사람을 조화롭게 모이게 하는 것은 편집부의 몫이었다.

4 《나의 생명이야기》 황우석·최재천·김병중 지음 | 효형출판 | 352쪽 | 값 11,000원